

# “5년간 혁신기업에 2.1조, 핀테크에 250억 직접투자”



**신한퓨처스랩 제2출범**  
 혁신성장 맞춘 ‘스케일업’ 전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기업, 유니콘으로 육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신한생명보험본사에서 열린 ‘신한퓨처스랩 제2출범식’에 참석해 핸드프린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금융권이 디지털 혁신의 발판이 되는 핀테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디지털 혁신의 요람 역할을 하겠다고 ‘디노랩’을 출범시켰고, NH농협금융은 디지털 연구개발(R&D)과 핀테크육성을 담당하는 ‘NH디지털 혁신캠퍼스’의 문을 열었다.

이번엔 신한금융그룹이다. 기존 신한퓨처스랩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 제2출범식을 갖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11일 서울 중구 신한생명 디지털캠퍼스에서 ‘신한퓨처스랩 제2출범식’을 개최했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조 1000억원 투자하고, 특히 핀테크를 대상으로 250억원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에는 최근 금융혁신 관련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랩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장”이라며 “국내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힘으로 우리 핀테크 기업을 유니콘으로 키워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한퓨처스랩은 신한금융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2015년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상생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의 혁신성장 행보에 맞춰 ‘스케일업(Scale-Up)’ 전략으로 제2의 출범을 선포했다.

발굴 스케일업 전략은 혁신기업 발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 육성기업의 범위를 핀테크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기업으로 넓혀 향후 5년간 250개 혁신기업 발굴 육성을 예정이다

육성스케일업 전략은 토털 패키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에는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 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스타트업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투자스케일업 전략으로는 직접투자 규모를 향후 5년간 2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2조1000억원 규모의 그룹 혁신성장 재원을 투자할 대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6000개 투자유망기업 풀을 조성하고, 그룹 내 다양한 조직을 혁신기업 발굴 채널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퓨처스랩이 스케일업 전략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엔 선발된 신한퓨처스랩 5기는 40개 기업이다. 퓨처스랩 설립 이후 최대 규모다. 핀테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및 생활플랫폼 기업, 베트남 진출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발됐다. 특히 이번 기수부터는 소셜벤처 기업을 선발하는 등 선발 규모나 지원 영역을 대폭 확대됐다.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지원도 뒷받침 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전향적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예산·공간 지원,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며 “다음달에는 코리아 핀테크 워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영토 확장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전문가와 ‘송리단길 부동산 투어’ 세미나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

KEB하나은행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송리단길과 방이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제7회 부동산 투어(投:語·Tour)’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투어세미나는 KEB하나은행 부동산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투자관심지역을 손님과 함께 직접 탐방하는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이번 ‘제7회 부동산 투어(投:語, Tour) 세미나’는 지난 북촌·홍대·성수동·성북동·이태원·경의선숲길에 이어 송리단길과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투어에서 참가자들은 특히 송리단길과 방이동 먹자골목의 ▲실제매물

에 대한 가격분석 ▲상권변화와 투자포인트 ▲해당상권 맞춤형 투자 유의사항 등이 담긴 상세한 자료와 실시간 상담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세걸 KEB하나은행 WM사업단장은 “손님들께 보다 현장감 있는 체험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투어 세미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주요 투자관심지역을 미리 파악, 다양한 체험적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손님들께 실질적인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에 기반한 자산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로머니(Euromoney)지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총 12회 수상한 바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KB금융-네이버, ‘대화형 금융거래’ 신호탄

**금융 AI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KB 금융 스피커 개발·활용 협력**

KB금융그룹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네이버와 인공지능(AI)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형성 및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B금융의 디지털 혁신부부장인 허인 KB국민은행장과 네이버 서치앤클로바(Search & Clova CIC) 대표 겸 라인 신중호 공동대표(겸 CWO)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B금융이 보유한 ‘클레용(CLAYON)’의 신기술 협업 환경과 네이버의 AI 기술 ‘클로바’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 제휴 및 KB 금융스피커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허 행장은 “KB금융의 금융 인프라와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이 네이버 서치앤클로바(Search & Clova CIC) 대표 겸 라인 신중호 공동대표와 11일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톡톡(대화형 banking 플랫폼) 등 고객 사용자 경험에 네이버-라인의 AI 플랫폼 클로바를 결합하면 매우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기술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B금융 관계자는 “음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모바일, 가전, 자동차 등에 사용되면서 음성을 사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외부 정보와 혼용되지 않는 별도의 ‘금융 전용 AI분석 엔진’을 네이버와 협력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우리銀, 온실가스 감축 앞장… 전기차 도입

본점 업무용 차량 중 30%까지 확대

우리은행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무용 전기자동차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앞서 친환경 전기차 5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기존 휘발유 차량을 교체해 친환경 전기를 본점 업무용 차량의 약 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범도입 후 충전 시설과 주행거리를 감안해 수도권 영업점 업무용 차량도 점진적으로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부터 LED 교체·노후 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을 위해 88억원을 투자했으며, 연간 약 34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전환 가능한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 “한강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확인하세요”

**현대해상** 주요 진입로 11곳에 설치

현대해상은 한강시민공원 주요 진입로 11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12일 완료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3월 현대해상과 서울시의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됐다. 서울시 50개 대기측정소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파랑, 초록, 노랑, 빨강의 4가지 색의 캐릭터, 한글, 영문 등으로 표시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놀이를 통해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힐링정글’ 캠페



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동요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 “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롯데카드, 임직원 헌혈 기증

롯데카드는 10일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러브 팩토리(Love Factory) 임직원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119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 경 추가 진행 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증을 모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증된 헌혈증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쓰인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임직원 헌혈캠페인을 진행해 지금까지 1766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홍민영 기자